



월비스 임용 합격수기 수상자 및 수상글

(우수상) 문화상품권(5만원) 1명
(장려상) 문화상품권(3만원) 3명
(참여자) 카페라떼 11명

2차 고득점의 비결은 1차 고득점이다. (도덕윤리-전북)/박○현(dong***)

우수상

안녕하세요. 2022년도 중등임용고시 도덕·윤리 과목에 응시하여 초수에 합격한 월비스 수강생입니다. 우선 이 합격수기를 보고 계실 여러분께 힘찬 응원 보냅니다.

저 또한 1년간 지독하게 공부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 힘듦과 괴로움, 외로움을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의 수고에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하루를 수행해나가고 계시기에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대단하시고 수고많으십니다.

그러면 제 합격수기 시작하겠습니다.(1차컷+18.67 2차컷+8.1)

제가 합격수기에서 알려드릴 것은 어떤 계획을 짜서 어떤 책을 보며 공부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보단 공부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할 첫 단추는 자신이 어떤 공부에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부의 분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적자생존형 공부입니다.

적자생존형은 기본서를 보고 노트에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여 자신만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공부방식입니다.

이 공부방식의 장점은 깊은 암기가 가능하며 망각곡선중 망각이 시작되는 시점이 늦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적자생존형 공부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해가 동반된 필기가 아니라면 손목만 아프고 시간만 낭비하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부방식은 읽자생존형 공부방식입니다.

읽자생존형은 기본서에 밑줄을 그어가며 눈으로 읽으며 밑줄친 부분을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여 읽는 것입니다.

이 공부방식의 장점은 회독시간이 빠르며 짧은 시간내에 많은 암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공부방식의 단점은 회독수가 굉장히 많지 않으면 쉽게 잊어 먹으며 쉽게 응용은 가능하나 완벽한 암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노트에 필기를 해놓아도 약필이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노트를 볼 시간에 차라리 기본서를 읽는게 더 효과적인것 같아 읽자생존형 공부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김병찬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어려운 개념을 풀어서 설명해주신 것을 기본서에 적어 놓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해해 나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처음엔 검정색 펜으로 밑줄을 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회독을 끝내고 두번째 회독때는 빨간색 펜으로 다시 한번 밑줄을 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처음엔 중요한 개념인줄 알고 밑줄 쳤던 개념이 이해를 동반한 2번째 읽기때는 중요하지 않은 개념임을 깨닫고 밑줄을 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읽기를 시작했을 때는 파란색 펜으로 네번째 읽기 때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니 저는 다섯번째 읽기 때부터 모든 펜이 겹치는 부분만 읽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되니 자연스레 일회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저는 결과적으로 고사장을 들어가기전 기본서를 60회 이상 회독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읽자생존형 공부방식에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그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읽자생존형 공부는 이해에 중점을 둔 공부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을 완벽하게 서술할 순 없지만 그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혹은 핵심 키워드를 쉽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핵심 키워드만을 가지고 정답을 서술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 또한 이 때문에 많은 시간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분명히 머리속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있지만 글로 써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가장 많이 좌절하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식상한 말이지만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풀어봐야합니다.

저는 7~8월 커리큘럼인 주제중심모의고사를 풀면서 해답을 얻게되었습니다.

제가 얻게된 해답은 머리속으로 생각한 답안을 최대한 유사하게 글로 쓰려고 노력해보고 답안과 자신의 답을 비교해보면서 교정하는 작업을 열심히 한다면 읽자생존식 공부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도덕·윤리과의 문제 트렌드에서 느낄 수 있다시피 정답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의 수는 적어지고 있고 키워드를 산출해내 문장 형식으로 완성시켜야 하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정확히 알면 고득점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적인 공부보단 현실적인 공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공부방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식을 선택한 뒤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만드세요(본인이 초수라면 강사가 설정한 커리큘럼을 따라가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공부를 하면서 이해 혹은 암기 어느 한쪽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처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해없는 암기는 맹목적이고 암기없는 이해는 무기력합니다.

이해없이 암기만 한다면 암기한 지식을 활용 혹은 적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그 문제를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암기한 그 문장 그 방식대로만 문제를 푸는데 적응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암기없이 이해만 한다면 이해한 지식을 머리속으로 떠올릴 수 있겠지만 실제 답안지에 글로 작성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뼈대만큼은 암기하고 있어야 이해한 지식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해 그리고 암기는 적절히 동반되어 함께 굴러가야하는 것입니다.

셋째, 휴식없는 공부는 곧 실패입니다.

실 때는 공부 생각을 버리고 확실히 쉬어주면서 내일을 위한 재충전을 하십시오. 실 때 죄책감을 가지고 쉰다면 오히려 내일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실 때 확실히 쉬시다!!

넷째, 제목에서도 말했듯이 2차 고득점의 비결은 1차 고득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차는 정해진 답안이 있는 매우 객관적인 시험입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가나 모범답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2차는 오직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매우 주관적인 시험입니다.

사람에 따라 1차에 강한 사람 2차에 강한 사람이 나뉘겠지만 1차에서 고득점을 받는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1차는 정해진 모범답안과 유사하다면 고득점이기 때문입니다.

2차는 그 날 평가자의 기분, 상태, 집중력에 따라 점수가 차이날 수 있지만 1차는 모범답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점수를 잃을일을 없습니다.

따라서 2차에 자신이 없으셔도 2차에 자신이 있으셔도 우선 1차에 모든 집중을 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합격인증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2차에 굉장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1차에 집중투자하여 큰 점수차를 벌리고 2차에서 평균만 맞추는 것으로 작전을 짰고 그 작전이 정확히 먹혀 운이 좋게도 초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식을 찾고 그 공부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1차 고득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시는 시간 충분합니다.

공부시간을 늘리는것보단 공부효율을 늘리는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신과 맞는 공부법을 찾고 그에 따라 집중력있게 공부한다면 아침 9시에 나와 오후 3시에 집에 가도 좋습니다.

효율적이고 집중력있게 공부하십시오. 식상한 말이지만 이 말을 합격자들이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방법이자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괴롭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맺힌 땀방울은 절대 그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게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비스 일반사회 허역팀 수강후기입니다. (일반사회)/유○영(thdud****)

이번 2022학년도 중등 임용고시 일반사회 과목에서 고득점으로 1차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학부때부터 허역팀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으며, 지금까지 일반사회 허역팀 강의를 수강하며 느꼈던 점들과 또 예비 수강생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과목별 간단한 팁을 포함해 수강후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장려상

1. 사회과 교육론

가장 양은 적지만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웅재 선생님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해당 강의 시간마다 짚어주시며, 그 부분은 최대한 암기하는게 좋습니다.

교육론이 암기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키워드 중심으로라도 최대한 꼼꼼히 암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모책의 모든 부분을 정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웅재쌤이 짚어주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치

정치는 교육론처럼 자잘자잘한 암기보다는 전반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기계적으로 무작정 암기하는 것 보다는 왜 그러한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중쌤께서 늘 모든 개념을 설명하시기에 앞서 큰 틀에서 그러한 개념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서

쉽게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처음보는 낯선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치는 출제빈도가 높은 단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단원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3. 법

법은 내용과 암기량이 가장 많은 과목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 양도, 복습하는 시간도 두배 이상 걸립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너무 깊은 내용은 일부 스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의 깊이를 걸러내는 부분은 수업을 진행하며 인홍쌤이 적절하게 선별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 경향이 헌법, 민법, 형법 이외에도 소송법이나 기타법 등에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원을 놓치지 말고 모두 공부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사회문화

사회문화는 법 다음으로 암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조사 방법론 파트에서 원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파트를 공부함에 있어서 정치 공부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표집의 종류를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표집 방법들이 그러한 특징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론 이외의 다른 파트들은 웅재쌤이 짚어주는 부분들만 꼼꼼히 암기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5. 경제

경제는 무조건인 암기가 아닌 내용 이해로 다가가야 합니다.

허역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여러 범위를 다뤄주시니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수강하면 됩니다.

개념의 양은 많으나 암기의 필요성은 적기 때문에 갈수록 학습 부담은 적어집니다. 모든 과목이 그러하겠지만 경제는 처음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비만 넘긴다면 수월해지니 처음 산을 넘을 때까지만 기본기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약 일 년 넘게 일반사회 허역팀 강의를 들으며 느꼈던 것을 짧게나마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누군가 저의 '1차 고득점 비결이 무엇이나' 묻는다면 '허역팀 강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정도로 일반사회팀 선생님들을 전폭적으로 믿고 강의를 수강했으며, 선생님들께서 추천해주시는 방법대로 공부하려 했습니다.

만약 전공 1차 공부가 막막하다면,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없이 혼자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방대한 전공 내용 중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다면 허역팀 강의 수강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막막하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4인4색반, 최종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할때 즈음에는 여러 과목별 중요 내용을 자연스럽게 인출하실거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수강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하기에 앞서 참고하시는용 정도로 읽어주시길 바라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주시는 허역팀 선생님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임산부도 했어요~ 다들 할 수 있어요~!! (전문상담)/김○정(mijung****)



안될 이유는 찾으면 많겠지만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저는 5월까지 꾸준히 체력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걷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육학 강의를 들으면서 걸으면 1석 2조입니다!

그러나 5월부터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해서 운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기도 했고, 임신중이라서 백신접종도 못했기 때문에 1차 준비 시 학원 수강도 어려웠고, 2차 면접 준비 시 스터디카페 출입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대체해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후배 선생님들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이유가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경범 선생님께서 하신 말 중에 계속 똑같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다보면 그 자리의 기운이 쏠린다. 고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무작정 믿었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습관이 형성되게 되었고 습관이 형성되자 그 이후에 하는 것은 고민없이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불필요한 고민, 생각을 하는 시간이 줄게 되었습니다. 꼭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육학 공부후기

1-2월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에 어떤 정보도 없이 혼자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강사가 유명한지도 몰랐습니다.

샘플강의를 듣다가 이경범교수님 강의를 한번 듣고 재미있게 끝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이미 시작한 기본반 강의를 하루에 5강에서 6강씩 몰아들으면서 진도를 따라잡기 바빴습니다.

이때는 어떤 필기도 하지 않았고,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스토리텔링을 들으면서 즐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드 보는 것보다 재밌게 느껴지며 지겹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를 다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합격한 사람들은 1,2월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말해주셔서 최대한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고자 했습니다.

3-4월

저는 3월에 교생을 가게 되면서 교육학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생을 먼 곳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동안 핸드폰으로 1-2월 강의를 다시 듣거나, 3-4월 논객강의를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책 없이 들었지만 워낙 설명을 세세하게 해주셨고, 1,2월 강의를 재밌게 들었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4월에는 작년에 교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한여름 밤의 특강' 심화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테마를 정해서 심도있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테마를 다뤄주셔서 해당 주제들에 대해서는 폭넓게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2022년 임용에서 교육학은 응용하여 적는 문제가 많았는데, 이 테마 강의에서 그 부분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5-6월

이때는 기출분석 강의를 진행하시면서도, 테마 강의를 계속 이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기출보다는 한여름밤의 특강 테마강의를 들으면서 모르는 부분을 계속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쯤이면 교육학 전체 과목이 여러 번 반복되므로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가 가려지기 때문에 한여름밤의 특강에서 심화된 자료들을 선택하여 소화할 수 있게 되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7-8월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은 점검하고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린 부분은 다시 기록하면서 빠르게 여러번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때에도 계속해서 산책할 때나 어디에 이동할 때에 1,2월 기본강의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경범교수님의 기본강의가 이해위주이고 워낙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 다시 듣는 것이 지겹지 않아서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9-11월

모의고사반을 수강하면서 침식기회가 있을 때는 매번 신청을 해서 온라인으로 침식을 받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많은 부분이 모의고사에서 적중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교육학에 많은 시간 투자를 할 수 없었음에도 점수가 어느정도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은 1~4월에 최대한 반복하며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강의가 재미있고 이해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경범 교수님을 선택한 것이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짜투리 시간에 여러번 강의를 반복할 수 있어야 교육학 감을 놓치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번 반복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2022 역사 합격수기 (역사-경기) 임○순(limk****)



2021학년도(경기, 초수) 1차 70, 2차 최종탈락

2022학년도(경기, 재수) 1차 78, 2차 최종합격

1. 공부방법

1) 시간배분

대학교 2학년때 메타인지를 해보고 '나는 1년간 안놀고 오롯이 공부만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쌓아올린다는 생각으로 매일 5시간씩 공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학년부터 4학년까지에 재수 1년, 4년의 시간동안 매일 5시간 전후로 공부한 셈입니다.

다만, 대략적인 시간을 정했어도 실제 공부는 '몇시간을 하겠다'보다는 '어디까지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분량이 끝나면 1시간밖에 공부를 안했더라도 가차없이 놀았고, 분량이 끝나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2) 스터디그룹

고등학교때부터 스터디그룹을 통해 많은 공부를 해와서, 스터디그룹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인연입니다.

(1) 학부생 시절엔 교사를 희망하는 동기들과 함께 개론서 인출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기본기가 없으면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에 동의해 기본기를 쌓아올리자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2) 초수 때엔 교육학, 전공 스터디를 따로 진행했습니다. 과 선배님께서 먼저 제의해주셔서 교육학 스터디를 전화로 진행했으며, 전공의 경우 카카오톡 단독방을 통해 선배들과의 상시 질의응답방, 동기들과의 질의응답방을 운영했습니다.

(3) 재수 때에는 교육학, 전공 상관없는 인출 단독방을 동기들과 운영하고, 타학교 응시생과 전화로도 스터디에 임했습니다.

2. 내가 김종권 선생님 강의를 들은 이유

전공역사 강의는 듣는 게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죠. 저는 강의를 듣기에 앞서 고려한 사항이 몇가지 있었고, 생각을 정리해 김종권 선생님 전공강의를 들었습니다.

1)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인가?

중요하다, 나눌 수 있다는 명분으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수험생들에게 내던지는 강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수험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을 추려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수험생이 감당하기 힘든 분량을 던져주고 떨어지면 '소화 못한 학생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김종권 선생님의 강의를 딱 적절한 내용을, 선생님 나름의 중요성 인식 하에 추려서 전달해주셨습니다.

2)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가?

가령 한국사에서 조선사 이후로는 꾸준히 뿌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통만 붙잡는 인강은 다함께 수렁에 빠지자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제가 기본기를 스스로 다지는 동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적절한 분량으로 알려주실 분은 김종권 선생님이 제격이라 생각했습니다.

3. 전공공부

앞서 말했듯 '기본기가 최우선이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사는 한통론과 다찾, 동양사는 한위중과 구동개, 서양사는 서개론을 독파하면서 서브노트를 기본으로 만들고, 서브노트의 여백에 김종권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을 추가로 써내려가면서 공부했습니다.

1) 최근 트렌드 반영

한국사는 뽕샘, 서양사는 서강좌 등 최근에는 기존의 개론서와 다른 곳에서 문제가 왕왕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이 부분을 어차피 인강에서 다뤄줄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는 누차 강조하는 기본기의 영역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사의 다잡과 같이 적지만 나오기는 하는 부분도 챙기려는 생각에 서브노트에 같이 정리했습니다.

2) 교과서도 인강에서

아이히만 문제 이후로 교과서를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선배 중에도 8종교과서를 달달 외우시는 분도 봤을 정도였는데, 저는 교과서를 단 한번도 제대로 안봤습니다. 이것도 강의에서 다 다루기 때문입니다.

3) 역교론은 학부수업과 인강

전 참 운이 좋습니다.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역교론의 석학 중 한분이셔서 늘 좋은 강의,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들었습니다. 더불어 많은 선배들께서 해주신 '역교론을 대충보는건 임고에서 떨어지겠단 소리와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2학년때부터 역교론 책을 떼는 것에 최우선의 중점을 뒀습니다. 여기에 교사 경험까지 갖추신 김종권 선생님께서 실제 경험에 기반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도 좋은 것은 물론 현장에서 갖는 교사의 고민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4) 교육과정은 총론만

교육과정엔 총론과 각론이 있습니다. 김종권 선생님은 총론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와 문장을 알려주셔서 그것 위주로만 공부했습니다. 다만 제작년 시험에서 동아시아사 총론이 그대로 나온것과 달리 이번에는 교육과정 문제가 매우 이질적인 방식으로 나와서 대처하기 힘들었습니다.

5) 한자는 써가면서

한자를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에 보면 설명은 이해의 적극적 표현이다 이런 뉘앙스의 내용이 있던 걸 저는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내용을 알아도 사료의 문장을 한자 그대로 외워 쓰지 못하면 제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봤습니다. 가령, 의정부 서사제의 사료에서 皆先稟於議政府 議政府商度可否 然後啓聞取旨 還下六曹施行(개선평어의정부 의정부상도가부 연후계문취지 환하 육조시행) 부분을 외운다 치면, 거기서 한글자라도 못쓸 경우 다시 외워가면서 사료를 봤습니다.

4. 교육학공부

교육학은 인강을 들긴 했으나, 대부분 학부생 시절 교직수업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했습니다.

다만, 교육학이든 역사교육론이든 배운 내용을 그대로 외우기만 하는게 아니라 제 공부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해봤습니다.

교육학부터 전공까지 저는 모든 내용을 서브노트로 만들었습니다. 서브노트는 노트에 쓰는게 아니라 A4용지를 길게 4칸이 나오게 접고, 1, 3번째 칸에는 질문을, 2, 4번째 칸에는 답을 적어 접은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답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내용을 추려서 새로운 서브노트를 만들고, 거기서 또 모르는걸 추려서 만들고 하는 식으로 점차 내용을 간략화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모든 분야를 다 돌리는 데에 9월이 넘어서 1주일도 안걸리더군요.

5. 모의고사

교육학은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경우 지난 2년간 김종권 선생님의 5~11월에 이르는 기출분석, 분야별 모의고사, 실전모의고사를 빠짐없이 챙겨들었습니다. 제작년부터 모의고사에서 꾸준히 60점 중반 이상

의 점수를 받아왔기에 저 스스로는 60점 중반 전후의 점수면 합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 컨디션을 일부러 망쳐서 본다

저는 늘 '시험 당일날 내 컨디션이 좋으리란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친 모의고사는 일부러 밤을 샌다던지 등의 방법을 통해 컨디션을 망친 상태에서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2) 동기와 함께 말로하는 오답노트

동기 중에 현강을 듣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모의고사가 올라온 당일날 밤에 서로 채점을 해보고, 서로 틀린 곳은 무엇인지 공유하고, 서로의 약한 점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매 회 진행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건 조선 초기 삼관(성균관, 예문관, 교서관 등)을 둘 다 유추 못한 것, 제가 유튜브로 드라마 '대왕세종' 클립을 봐서 계미자, 갑인자가 밀랍으로 붙이는 방식과 틀로 고정된 방식의 차이가 있단 걸 맞힌 경우가 있네요.

3) 짧은 시간에 주파하기

각 회차는 80분 딱딱 재는 게 아니라 그냥 AB형 통틀어 20분 안에 풀어버렸습니다. 수 차례 고민해서 겨우 맞히는 건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1차시험 당일날 시계 배터리가 다돼서 야에 시간을 모르고 모든 시험을 봤음에도 이런 훈련이 빛을 발해서 그런가 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6. 2차 준비

2차 준비는 스터디그룹을 기본으로 합니다. 6인의 스터디를 구성하고, 매일 랜덤으로 인원을 돌려가면서 3인, 3인이 나뉘어 수업실연 및 나눔 2회, 면접 1회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이들은 월비스 학원에 직접 찾아가 김종권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김종권 선생님께서는 현장교사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므로 수험생의 눈이 아닌 교사, 면접관의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시고 제게 필요한 피드백만을 주십니다. 덕분에 작년 수업실연 점수가 낮았던 것과 올해 1차시험 점수가 낮았던 것을 극복해 최종합격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7. 수험생분들께

저와 제 동기, 선배들은 임고에 '수령'이 있다고 합니다. 초수, 재수 때에 떨어지면 '공부를 덜 했나?' 혹은 '공부방법이 잘못됐나?' 등의 생각이 들지만, 점차 해를 더해갈수록 '내가 교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가?'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운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길게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방법에 맞게 최종합격까지 빠르게 주파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선생님들과 함께 교단에 설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월비스 임용 수강후기 수상자 및 수상글

(우수상) 문화상품권(3만원) 2명
(장려상) 문화상품권(1만원) 3명
(추첨) 아메리카노 11명

어떻게 공부를 해야하는지 틀을 잡게해준 강의 - 최○경(canta****)

우수상

안녕하세요. 작년 임용을 준비했던 학생입니다.

비록 불합격하긴 했지만 이번에 친 임용이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와서 애나쌤께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수강후기를 남깁니다. 저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국악과 서양음악사 종음셋 3~6월 강의와 9~10월 모의고사반을 수강했습니다.

졸업 후 2020년에 임용 시험을 쳤지만 여전히 이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막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조금 늘어진 저를 발견했고 조금 늦게 다이애나 선생님의 종음셋 3~6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생각한 다이애나 선생님 강의의 장점입니다.

1. 교재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다.

주변의 여러 교재들을 많이 접해보았지만 다이애나 선생님 교재는 정리가 정말 잘 되어있어요.

제 성격상 서브를 만들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표 간격까지 맞춰야하는 성격)..

이번에는 과감하게 서브 만드는 걸 포기하고 다이애나 선생님 교재만 계속 회독했습니다.

물론 서브가 있으면 시험이 다가올 때쯤 더 빨리 회독을 돌릴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교재로도 충분했어요.

2.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할 지 알 수 있다.

영리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조언을 해주십니다.

현대음악을 예로 들면 이 사조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 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음악이 어떤 배경에서 출발했는지 알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개념만 외우려 하면 장기적으로 기억이 잘 안나는데 배경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니 암기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3. 외우는 방법 (청킹)

청킹을 만들어서 외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청킹이 적응이 안되어서 그냥 통으로 줄줄 외우다 다이애나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청킹 그대로 외워봤더니

신기하게 기억이 더 잘나고 더 빨리 암기가 되었어요. 아마 강의에서 듣고 + 외우고 반복한 효과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9~10월 강의에서 중요한 것들을 청킹한 자료를 주셔서 그 중에 외운 개념 (고든)을 시험 때 잘 쓰고 왔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제 실력이 향상된 것이 점수로 보여져서 정말 놀랐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기가 제대로 잡혔고, 전체적인 이해력이 높아졌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과목 선생님과 스터디를 할 때 어버버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올해는 제가 어느새 대답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9~10월 강의에서는 암기한 것들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하고 생각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해설 강의에서도 접근 방법을 알려주시고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부족한 개념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시험을 치고 결과 발표 후 채점을 하면서 다이애나 선생님 강의를 패키지로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ㅏㅏ

저처럼 임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패키지로 들으면서 다이애나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부방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다이애나 선생님 강의를 정말 꼭 추천하고 싶어요.
(다이애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듣다보면 어느새 교육학이 정복되어 있는 놀라운 강의 / 박○혁 (star****)



갓경범.. 정말 신기한 강의입니다. 많은 강의를 들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어려워도 이해가 안돼도 묵묵히 들으며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교육학은 완성이 되어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해왔을 학습 방식을 철저히 부인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경범 교수님의 강의 방식은 신선하고,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수 많은 개념들과 논리들이 더욱 기억에 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재의 글씨하나 보지 않으시면서도 거칠것이 없는 부드럽게 흘러가는 강의와 어떠한 질문도 명쾌하게 받아주심과 동시에 더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시며 사고의 틀을 깨십니다. 스스로 초수들이 싫어하는 강의라 자부하시며, 수강생들의 필기를 거부하십니다.

"나랑 커피 한잔 하면서 즐겁게 대화하면서 왔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들어라" 하시면서 그렇게 묻고 답하다 보면 책이 한장한장 넘어가 있고, 2달 썩 묶여있는 진도는 순식간에 끝맺게 됩니다.

전공 공부에 지치고 수험생활에 치이며 살아오는 임용 수강생들에게 이 수업은 가히 힐링이라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우느라 힘들다," "지겹다," "교육학이 너무 싫다"라고 말하며 키워드라고 불리우는 파편들을 달달달 외울 때, 이 수업의 수강생들은 내재화된 수많은 문맥들을 자연스럽게 답안지에 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 입니다.

시험을 볼게 하기 위한 강의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강의가 있다면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시지요.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것입니다.

교사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강조하시며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노라면 자연스럽게 고득점은 따라오게 될 겁니다.

저는 경범 교수님 강의를 듣고 초수에 17점, 재수에 만점에 가까운 19.33점을 받았습니다. 전공에 발목이 잡혀 계속 수험생활을 이어나가야 하지만 교육학은 정말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한해를 보낼 수 있다고 다짐하신다면, 이 강의와 함께 원하는 그 목표를 이뤄내리라 감히 자신합니다. 종강 후에 정상에 올라와 교육학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게 되는 그 기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장영희 강사님 수업을 추천합니다!!(무한반복, 최다첨삭등) / 김○진(happ****)

저는 전공 중국어 장영희 강사님의 수업을 1년이상 들은 학생입니다.

작년에는 비록 저희 전공에 티오가 없어서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긴 수험생활 장영희 교수님 덕분에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장영희 강사님 수업의 특징으로 우선

첫째로, 무한반복에 있습니다. 교수님의 중국어과목 1년 패키지는 1-2월(기본서), 3-6월(원서&모고), 7-8월(정리&모고), 9-11월(정리&모고)

이렇게 운영됩니다.(기출은1월부터 진도에 맞춰 진행됨)

1-2월에 한글 개론서로 배운 내용을 3-6월 4개월 동안 원서로 배우고, 7-8월에 전체 정리하며, 또 9-11월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계속 반복되기도 하지만, 평소 수업시간에 오늘 배울 내용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내용과 다시 연계해 설명해 주시으로써

정말 교수님께서서는 저희가 배워야 할 내용을 약 일년 간 수백번은 더 무한반복해 머릿속에 입력되게끔 도와주십니다.

둘째로, 첨삭을 자주 꼼꼼히 봐주십니다.

3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모의고사 문제가 있고 11월까지 진행되는 모든 첨삭을 교수님께서 직접 봐주시고 부족한점은 1:1 지도를 해주십니다.

(3월부터는 이론과 독해수업에도 각 각 첨삭이 있어 모고 까지 포함하면 매주 3회 수업이다 보니 첨삭이 없는 날을 제외한다면 매주 최소 1~2번이상의

첨삭을 받습니다. 또한 첨삭 여부와 별개로 매주 이론 독해 모고반에서 총 3번이나 중국어로 서술형을 작성하고 대비하다 보니 중국어로 답안 작성하는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첨삭 기회를 잘 활용하니 작성한 중국어 서술형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어색한 문장이 있을 경우 교정 받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상담도 자주 해주셔서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을때 즉시 해결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님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셔서 정말 힘든 수험생활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로, 교수님께서 문학사와 문학 작품을 자주 연계하셔서 작품의 배경이나 시대상이 쉽게 이해됩니다.

예를들어 어제 문학사를 배우고 오늘 독해 문학작품을 배운다면 해당문학작품과 관련한 문학사 흐름을 다시 잡음으로써

최소 오늘 2번 이상은 더 반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문학사는 흐름도 양도 방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문학전공자셔서

정말 꼼꼼하게 잘 이해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교수님께서서는 수업시 칠판에 ppt로 핵심 내용을 띄우고 칠판에는 판서를 해서 우선 구조화를 확실히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다시 교재를 보거나 혼자 핵심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빠지는 부분없이 기출부터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핵심도 배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핵심만 배우기엔 불안하신 수험생들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떠먹여주는 스타일이시다 보니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공부하기 힘들때에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실력이 상승했다고 봅니다.

수업에 대한 느낌은 수강생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낀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위와 같고
사실 수업을 듣다보면 교수님의 더 좋은 수업도, 더 나은 부분도 얼마든지
아실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이 긴 수험생활 버틸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올해에는 꼭 티오가 있어서 내년에는 합격수기로 작성해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합격했습니다 김○아(dpaqmf****)

문법에 대해 암기영역이다, 양이 많다, 어렵고 뭔가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문법이 취약한 영역이었고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권보민 교수님 1년 커리를 들으면서
자신있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문법을 지엽적이거나 파편화된 지식으로 습득하려고 하면 외워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권보민 교수님 강의가 좋았던 게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줍니
다.

치조비음화/비음화, 중세국어의 ㅇ음가 등 변별이 어려운 현상에 대해서도 애써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
가 느낀 가장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십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파생, 확장된 질문을 환영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십니다. 상반기에 어느정도 기틀이 잡히고 나니 보이는 게 생기고 궁금증이나 의문을 제기
하면서 수강했는데 그게 엄청난 학습동기로도 작용합니다. 나도 몰랐던 나의 탐구력을 발견하며 긴 수험생활
동안 지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님이 질문을 환영해주시고 어떤 질문을 해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하시기 때문에
저도 교수님 능력과 태도에 대한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재수에 공부를 시작하여 일탈, 일합, 일탈, 최합을 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공부를 시작할 땐 문법도 보조사, 조사 구분은 물론 품사 체계도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재수때 권보민샘 커리를 1년 타고는 어떤 문제든 이해하고 더 나아가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는 수준이 되었고
스터디원의 질문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함께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아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면서 잘 이해하고 배운 문법지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권보민선생님 강의로 다녔습니다. 저는 학습전략이라던가 암기전략, 자료정리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냥 수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후에 복습하는 것이 다인 학습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수업과 복습 과정이 의미없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알찬 강의입니다.

임용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을 쉬고 돌아왔을 때에도, 해당 년도 모고도 익숙하게 풀고 자신감을 찾는
데 문법이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역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문법은 한번 잘 잡는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



다.

저에게 강의에 들이는 모든 시간이 아깝지 않았던 유일한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잘 맞는 분들이 들으신다면 시험이 끝나면 휘발되는 지식이 아니라 문법의 전문성을 닦을 시작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태식 교수님을 만나고 저의 교육학이 유의미해졌습니다~... 최○용(ulysses****)

신태식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육학에 대해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2월 신태식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후에는 교육학에 대한 체계를 잡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ㅎㅎ 신태식 교수님의 교육학커리는 다른 교수님들과 차별화 되어있습니다.

1. 맥락중심적 내용설명!: 개념과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 교육철학부터 시작해서 이리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된 배경 및 그전 내용과의 연계성을 토대로 설명해주십니다. 그래서 수업에 재밌게 임할 수 있었으며 내용들이 각자 떠도는 것이 아닌 유기적인 연계 속에 틀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2. 동기와 함께 참여의식을 높여주는 이해점검!: 교수님 수업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보통 다른 교육학 1~2월 이론강의에서는 내용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수업은 그주 배운 내용을 면접형식으로 점검받습니다. 점검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수업시간 때 강조하셨고 전이가가 높은 개념 및 내용들을 발문하시면 제가 저의 언어로 어떻게 이해했는지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며 핵심적인 키워드와 함께 저의 인지를 정돈해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학습내용을 내면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점검시간이 있으니 수업시간 때도 더욱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답변 하는 것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동기부여도 정말 많이 됩니다ㅎㅎ

3. 학습의 틀을 잡아주는 판서노트!: 교육학 내용이 방대한만큼 틀을 먼저 잡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판서노트는 학습의 적정량을 유지시켜주면서 교육학에 있어 꼭 알아야하는 핵심적인 개념과 흐름을 잡아줍니다. 판서노트는 수업시간 때도 활용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후 판서노트를 통해 복습을 하면 수업시간 때 배운내용도 회상이 잘되며 자연스럽게 교육학의 구조를 그려나가게 됩니다.

4. 논술의 체계를 다져주는 오픈북 모의고사!: 임용시험 교육학 영역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배운 교육학적 내용을 토대로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봤을 때 이는 특정달이나 시험에 임박했을 때만 하는것이 아닌 처음 공부할 때부터 잡아 두어야 한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지금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이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논술로 풀어낼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2월달은 교육학에 대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픈북 형태로 작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픈북형태로 진행되어 모의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내용학습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술문 작성을 위한 방법도 함께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 작성 기술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후 첨삭과 함께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자기점검을 하게 되며 학습에 있어 긴장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ㅎㅎ

이외에도 교수님 수업의 메리트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내용 및 수강후기였습니다~ 앞으로의 3~4월 수업 그리고 그후 1, 2차 시험 끝날 때까지 교수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서 교육학 고득점과 함께 꼭 최종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